

수입 개방 압력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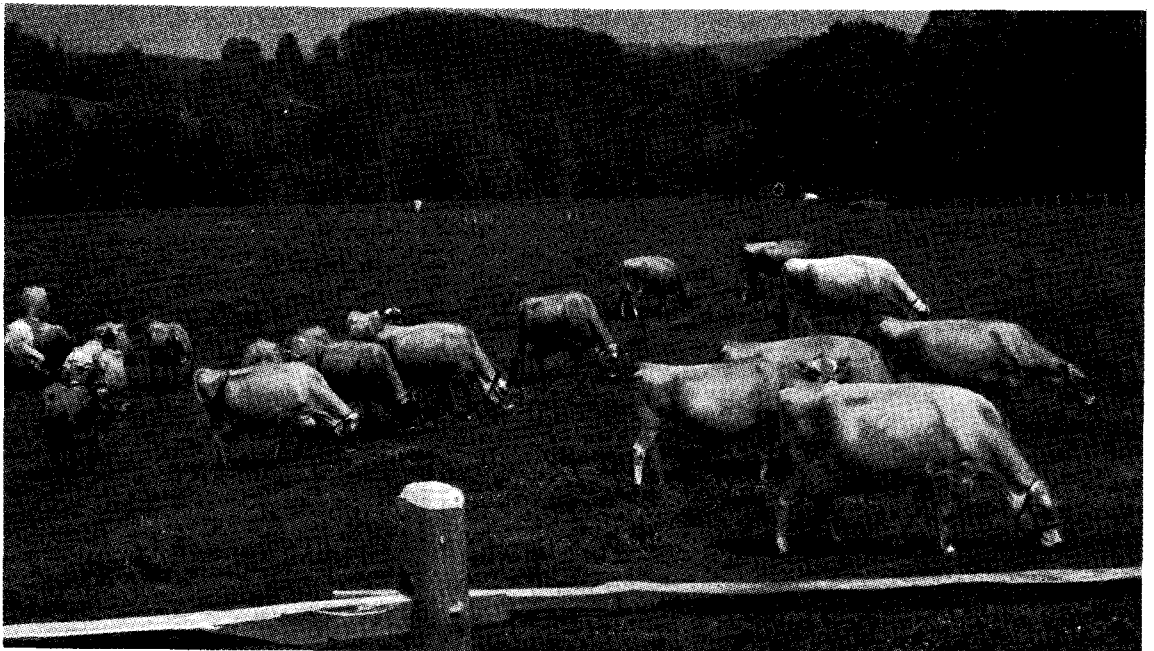
權 元 達
忠北大 農大

1. 問題의 提起

90년대 의 한국농업은 그동안 계속된 수입 개방 압력이 실현되는 시기로 국내 외적으로 시련이 겹쳐질 것 같다. 지난 10월 27일 GATT 국제수지 위원회에서 한국이 GATT 18條B項에 의한 수입제한을 철폐하게 함으로서 우리 농업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인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農產物輸入制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畜産業은 역사가 일천하고 産業으로 성장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은 바로 나타나고 있으며 축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축산업 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制度의 補



完, 축산물가격안정제도 실시, 유통구조개선, 축산업의 구조조정, 농민단체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GATT 18條國의 졸업과 시장개방 압력에 따른 한국농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들은 어떤 것이며 開放壓力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어느때보다 공동대처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 할수 있다.

2. GATT 18條國 卒業의 의미

89년 10월 23일 스위스 체네바에서 열린 GATT의 國際收支協議會에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의 유예기간 밖에 얻어내지 못한채 국제수지협의회 졸업을 하게 된 것이다.

GATT 국제수지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은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90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GATT 18條國 B項 援用을 중단한다.

둘째, 현재 한국이 수입제한하고 있는 대부분이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97년 7월 1일까지 수입제한조치를 모두 철폐하거나 GATT규정에 일치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3개년 수입자유화 계획이 끝나는 1991년 3월 그리고 1994년 3월까지 나머지 수입제한품목에 대한 3개년 단위의 수입자유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GATT에 통보한다.

넷째, GATT회원국들은 한국의 자유화계획에 포함된 품목들에 대해서 GATT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자제하도록 한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7년 6개월 유예기간동안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일정을 제시하게 되었다.

사실상 GATT 18條國을 졸업하면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수입수량제한을

GATT 18조국을 졸업하면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수입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GATT 11조국으로 이행됨으로 수입 개방을 확대하고 선진국이 갖는 의무 부담을 따르게 된다. 즉 선진국시장으로 진출시 개발국에 부여하는 선진국의 관세혜택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모든 국제협정에서 개발 도상국 우대조항의 적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되며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기여가 불가피하게 된다.

금지하는 GATT 11條國으로 이행됨으로 수입개방을 확대하고 선진국이 갖는 의무부담을 따르게 된다.

즉 선진국시장으로 진출시 開發國에 부여하는 선진국의 關稅혜택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모든 국제협정에서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의 적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되며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기여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개방 조치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

3. 시장개방 압력과 韓國農業의 課題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1997년 7월 1일에 완전개방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농산물이 거의 개방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농민과 農業生産團體들이 農產物市場開放壓力에 대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대안없는 목소리만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그것은

수입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도 미약했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관심도 약했었다.

지금까지의 농산물 수입반대 운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 못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취약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과의 대외 협상과정은 물론 국내적으로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진정한 역할을 정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입개방반대과정에서 각종 情報蒐集機能이 부족했고 또한 說得力도 빈약했던 것이다. 農業側面에서 보면 수입개방 반대 주장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피해를 일시적인 동정이나 감상으로 생각했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선호는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對外的으로도 協商相對國의 실정이나 요구의 배경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수집과 분석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한국 농업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는데도 충분했다고 할 수 없다.

수입농산물은 값도 싸고 品質도 좋다는 소비자 여론이 공공연히 통용되었으며 국내농산물은 가격이 높고 불안정하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과 일시적이고 동정적인 농민 보호운동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축산업은 성장과정에서 수입개방에 따른 시련을 맞게 되었다. 한우육이 수입쇠고기에 밀려 쇠고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재고분유가 누증하여 낙농산업은 최악의 침체상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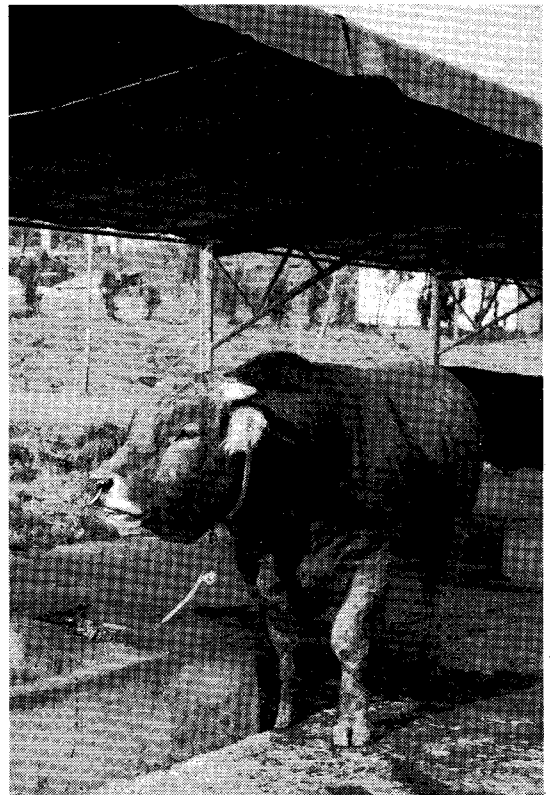
심각한 원유체화는 酪農家와 乳業體間의 대립으로까지 발전되었고 생산자들이 생산된 원유를 길거리 버리는가 하면 금년부터 乳業體들이 前年수준의 納乳 동결과 乳代의 분유대체지급 등 심각한 국

면에 이르렀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組合의 集乳 보관능력은 한계에 도달했고 乳代支給要請에 유가공업체는 자금부족과 시설한계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하에 일부 酪農家들은 政治力 집결을 위한 場外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內外 壓力에 대해 한국농업이 안고 있는 장단기적인 課題는 너무나 산적해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입개방에 따른 정확한 情報의 수집 평가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차에 걸친 貿易協商을 통해 체험하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해외로부터 수입자유화와 수입확대요구 압력이 현재와 같이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국은 美國農産物을 수입하는 주요 고객이면서도 미국측은 수입확대를 부당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美國은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입국이면서도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美國은 현재 한국과 美國間의 높은 쇠고기 가격차에 따른 수출이득의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쇠고기 잠재시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력과 소비잠재력을 매력있는 쇠고기 수출시장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情報의 수집과 분석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農業者側에서 농업에 대한 理論武裝과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농업이 지니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政治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진정으로 농업을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보호될수 있는 이론무장과 政策對應이 미약했으며 농업자측에서 수입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와 대응책은 강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입장에 있었고 결국 농민만이 피해를 입게되었던 것이다.

세째 生産性向上을 통한 生産費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농업은 농업여건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제한되었고 生産費節減은 지극히 어려웠던 것이다.

최근 일부 品目과 지역에서는 새로운 기술도입과 자원활용으로 생산은 높이고 생산비도 절감하여 國際競爭力을 높이고 있으나 한계는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소비자들의 값싼 식량요구를 설득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食糧과 농업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네째, 農業政策에 대한 과학적인 提示와 국가적인

노력을 하는 일이다. 현재 국내 농업도 일부 品目を 제외하면 쌀을 비롯하여 과일 채소, 우유 등이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전망과 生産目標을 정하지 못한채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여 왔으며 따라서 농업과 농가 경영이 발전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畜産長期發展對策을 마련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축산 관측제도를 강화하고 自助金制度를 도입하며 부업 단위 가축농가에 대한 계열화사업을 지원하고 육류 등급제 도입 등 流通構造를 개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國民的 合意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對策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문제는 食糧問題와 한국 농업의 기본적인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국민적 이해를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良質의 농산물을 供給할 수 있다는 自信과 신뢰를 소비자에게 심어주어 국산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4. 輸入開放壓力 對應方案

농산물수입개방은 이미 주어진 與件으로 반아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國民的 合意를 통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측에서 보면 個別農民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農民團體를 통한 長期的인 운동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입개방 저지에 대한 自體評價와 반성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운동방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국민의 生活水準 向上시키고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國

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國民的 會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민조직을 통한 운동이 전개되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農產物 輸入管理制度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농가피해가 큰 品目에 대해서는 GATT19條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활용하거나 동식물 검역제도의 활용, 수입부과금 제도의 도입 등이 적절히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축적인 關稅制度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의 변경과 사후적인 수입관리제도를 통해 관세의 인상, 탄력관세의 도입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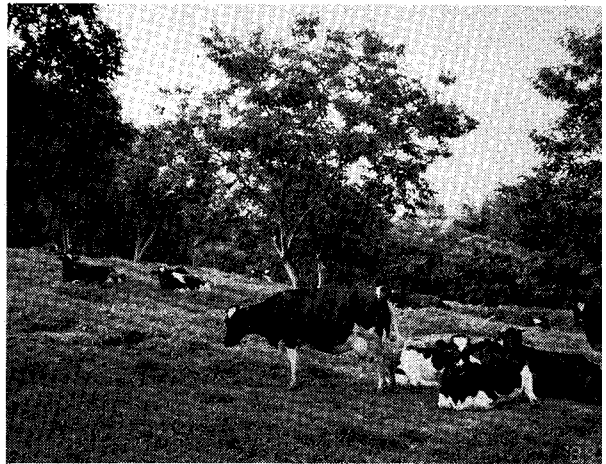
세째, 농업의 競爭力을 높이는 방법이다. 농업의 구조조정으로 規模化하고 競爭力있는 品目으로 생산을 전환하며 새로운 技術革新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형 가족 경영형태의 농업경영 유형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農產物價格 안정을 위한 制度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장기 우유수급안정 및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우유의 差等價格制와 自助金制度를 적극 실시하여 우유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유가공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현재 유제품 소비 동향을 보면 원유생산량은 1백50만7천9백88톤으로 88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량은 1백42만1천28톤으로 88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가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유생산 과잉때문이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원유가격이 13%인상되었고 젖소가격 하락으로 젖소도태를 기피했기 때문이며 유가인상에 따른 우유생산반응은 높게 나타난 것이



다.

따라서 시유를 폐기하고 유가공업체들이 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유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乳製品中 加工 치즈와 같은 品目은 국내 乳加工業體의 제조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수량 할당조치를 계속하며 우유를 원료로 하는 고급 유제품은 수입억제를 위한 행정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대책의 확충 강화, 資金支援에 의한 생산비 절감, 종축별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畜產物 流通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수입 축산물의 국내유통과 국내생산물을 分離할 수 있는 유통체계의 확립과 국산쇠고기의 共同購入 共同販賣를 통한 식육 소매점의 경영합리화와 철저한 쇠고기 표시제가 이행되어야 한다.

牛乳의 경우 소비량이 많은 牛乳의 경우 수퍼판매가격과 가정용 배달가격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 의한 직매장을 대폭늘려 유통경비가 절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유는 생산자 단체가 집유 처리, 가공에 참여하고 유가공업체는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 등 高級製品을 개발하여 원유 소비를 늘리고 수입乳製品과

유제품 소비동향

(단위 : 톤)

품 목	구 분	89.11	88.11	증감률 (%)	89.1-11	88.1-11	증감률 (%)
	원유생산량		130,596	121,173	7.8	1,507,988	1,429,463
시 유 분 유	제품소비량						
	백 색	92,298	96,490	△4.3	984,850	1,076,289	△8.5
	가 공	6,600	7,156	△7.8	79,989	86,696	△7.7
	계	93,898	103,646	△4.6	1,064,839	1,162,985	△8.4
	전 지	1,191	700	70.1	8,590	9,982	△13.9
	탈 지	889	741	20.0	13,658	10,234	33.5
조 제	조 제	1,929	1,849	4.3	20,676	19,036	8.6
	계	4,009	3,290	21.9	42,924	39,252	9.4
연 유		143	137	4.4	2,058	1,910	7.7
버 터		453	285	58.9	4,163	3,431	21.3
치 즈		228	215	6.0	1,948	2,218	△12.2
아이스크림		1,563	1,367	14.3	61,879	56,415	9.7
발 효 유		24,093	18,941	27.2	258,212	202,176	27.7
크 림		571	399	43.1	8,831	6,184	42.8
원유소비량		129,032	123,664	4.3	1,421,028	1,463,836	△2.9

대항할 수 있는 高價品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획기적인 資金 및 稅制支援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畜產物加工事業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방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와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생산자와 가공업체간의 적절한 補完關係를 유지하면서 생산자단체간에도 각종 정보교환을 통해 적절한 生産調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농산물수입개방압력은 실제로 가시화되었으며 97년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어떤 형태이든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이

농가와 소비자간에 二律背反性을 갖고 있지만 國民的 合意가 있어야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先進國의 수입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온 경험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대처방안은 국민적 합의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우리 농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수입관리제도의 변경, 關稅制度의 보완, 농업의 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절감, 品質改善,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생산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個別農民이 갖는 制約性을 극복할 수 있는 농민조직 또는 農民團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